

## '납골당' 용어대신 '봉안당' 으로

- 기술표준원은 26일 핵가족화 및 국민의식변화 등으로 화장(火葬)의 증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안당에 관한 3종의 KS규격을 제정하였다.
- 우리 나라의 연간 사망자수는 약 24만명. 이중 화장율은 46.4%(03년)이고, 화장 후 약 70%가 봉안당에 안치됨
- ※ 현재 봉안당은 총155개소(공설 81개, 사설 74개)
- 봉안당 서비스규격은 봉안상당에서 봉안 후 사후관리까지 봉안당에서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서비스 프로세스, 기반구조로 구성됨
- 용어에서는 일제시대 유입된 일본식 용어를 청산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절차, 용품, 시설에 관한 50개의 용어를 표준화함
- 납골(納骨)은 봉안(奉安)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준화;
- 봉안단, 봉안실, 봉안위, 봉안증서
-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공급자중심에서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제시함
- 사업자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봉안기간, 이용료 및 관리비, 봉안절차 및 방법 등을 알리고 거래계약 및 해지사항을 이용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기반구조에서는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인력, 품질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 동안, 납골당은 납골이란 용어 자체가 주는 혐오감과 공급자 위주의 거래관행과 사후관리 및 서비스 미흡 등으로 이용자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었으나, 이번 규격 제정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거래로 이용자의 불만이 감소하고 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대하고 있다.

## 택배포장 KS 규격화

— 민·연·관이 「택배포장 표준화 협의체」구성하여 KS작업 착수 —



11 택배 포장상자의 KS규격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고객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 기술표준원은 민·연·관 공동으로 택배기업의 물류비 절감, 소비자 에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물류 포장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화작업을 착수했다.
- 협의체는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 CJ GLS 등 국내 상위 11개 택배물류기업과 포장분야의 전문연구소 및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 정부부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표준화작업은 가공식품, 생활용품 및 농수산물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택배포장 상자의 치수, 저온유통 포장상자의 강도기준, 택배포장 취급 및 제품표시 방법 등에 대한 KS규격(안)을 2005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전체 택배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2002년 1조2천억원으로 매년 40%이상 성장하였으며, 2004년 6조2천억원, 2005년은 8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4년도 세계적인 단일 택배기업과 비교하면 독일의 DHL, 매출액이 500억불, 미국의 FedEx가 200억불로서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에 각각 8배, 3배 규모이다.

11 향후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택배 물류기업으로도 약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택배기업인 DHL, FedEx 등과 협력하여 ISO에서 국제 표준 작업만 구성·운영을 통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택배물류 기업이 중심이

되어 국제표준 선도·선진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부실 KS인증 중점 점검 실시

#### -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품질성능 인증분야 -

1 기술표준원은 5월 24일부터 2주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안전, 환경제품, 품질성능 관련분야의 KS 심사기관의 부실인증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최근 중국산 제품을 KS제품으로 위장판매(넌훔뚜경,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불량 KS제품(전기스위치박스, 도로표지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음

○ 이번 점검은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기술표준원 규격전문가로 23개조를 편성하여 KS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심사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KS는 '04년말 기준으로 924개 품목, 6,015개 공장(해외 7개국 112개 공장 포함)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04년은 600건의 KS인증이 발급되었음.

※ KS인증이란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이 산업

표준화법이 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KS마크 등을 표시·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이번 점검에서는 KS인증 심사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시료채취의 적정성, 적합한 시험 실시, 인증 수수료 징수, 인증심사일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주요 점검분야 >

- 전기 제품 : 전기스위치박스, 배선용 차단기 등
- 가스 용품 : 가스보일러, 가스밸브 등
- 환경 제품 : 재활용 세탁미누, 납 축전지 등
- 품질성능제품 : 천근, 배훈뚜껑, 수도꼭지, 레미콘 등

○특히 최근 1년 이내 인증을 받은 업체를 방문하여 인증심사원의 심사적정 수행여부와 더불어 인증심사과정의 예외사항을 조사해 개선시키나가기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 부실하게 KS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기관은 심사기관 품목 지정취소, 심사업무 정지 등 처분을 하고 부적정한 심사업무를 수행한 인증심사원은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발생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산업표준화법령을 개정해 KS인증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품으로 정착시키 나갈 계획이다.

- 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 안전, 환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KS제품의 2004년 제품 불량률 5.8%를 2010년까지 1%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 2005년도 제2차 NT, EM 인증서 수여식

- NT 11개, EM 15개 등 총 26개 품목 -



11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제품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도 제2차 신기술(NT마크), 우수품질(EM마크)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5월 13일 동 중강당에서 증서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인증제품은“ PDP/LCD BLU용 유리 실링재”등 26품목 으로 국내 최초의 신기술 또는 제품 11개, 국내 최고수준 자분제류(기체류,부품,소재) 15개가 신규로 인증 발표됨으로써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시장진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금번 대표적인 NT인증기술인 “무전해 표년처리기술을 이용한 태양열 집열판 제조 기술”은 그간 진량 수입에 의존해온 태양열 집열판용 구리강판을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서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확대가 예상되며,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관련산업 경쟁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대표적인 EM인증제품인 SMD(Surface Mount Device)형 수정 디바이스 온도특성 자동검사장치”는 최근 핸드폰, 각종 통신기기의 필수부품인 수정진동자, 수정발진기 등의 소자를 온도특성에 따른 다양한 전기적 특성변화를 전자동으로 측정하여 검사하는 장치로서 세계 최초로 열전도방식으로 개발하여 소자의 검사속도를 종전대비 6배 이상 향상시켜 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연간 6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특히, 정부는 신기술인증제품(NT, EM)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20% 이상 의무구매제도 시행, 계약·하자보증 등 신뢰성보험 확대,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인증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판로지원 및 관련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인증으로 각종 신기술인증제품의 정부 지원 수혜대상이 NT(신기술인증)는 총

671업체 682품목, EM(우수품질인증)은 총 913업체 1,043품목으로 늘어났다.

동 신기술(NT), 우수품질(EM) 인증서 수여업체의 주요 개발내용은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ats.go.kr)의 보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시아 최초로 시계분야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서울에서 개최**

ISO/TC114(시계분야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총회(제17회)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동안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시계분야의 국제표준이 유럽 주도로 제정되고 있어,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회의의 대부분을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 개최하였으나 이번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ISO/TC114 의장 및 간사를 맡고있는 스위스와 프랑스, 일본, 한국 등 9개국 대표 49명의 시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최된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인체의 피부에 직접 접촉이 되는 금속

및 가족의 알리지에 대한 규격 제정 및 손복시계에 한번 장착하면 시계의 수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충전식 맛테리의 치수 및 성능 시험방법 등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게 되고 방수시계의 정의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다.

□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시계분야 관계기관 및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내 시계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세계제조업체는 부품업체를 포함하여 390여개가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조2천억원 정도이며, 1억6천만불의 수출을 하고 있으나 수입이 무브먼트를 포함하여 1억9천만불 정도다.

세계시장은 400억불 정도이며 이번에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시계 생산 기술을 널리 알려 국제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상컨테이너용 무선인식 RFID 조기 실용화

### - RFID 응용표준 국제총회 한국유치 -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화물컨테이너 기술위원회(TC 104 Freight Container)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해상운송을 주도하는 세계 5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상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무선인식 전자봉인(RFID e Seal)의 응용표준이 2007년 까지 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표준 선정을 위한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물류유통 등의 산업에 이용

○ 기술표준원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동 위원회의 총회(2005. 5. 9 ~ 5. 13)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가하여 「ISO 국제표준화기구 화물컨테이너 기술위원회 총회」를 2007년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일부 분야에서는 무선인식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7년 전후 국제표준화에 맞춰 실용화를 준비중에 있어 금번 총회 유치가 우리나라 기업이 RFID를 조기에 실용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술표준원은 2005년 3월에 민·연·관으로 「컨테이너 무선인식 응용 e Seal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금번 동 위원회 총회유치에 따라 산하·연·관 및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하여 총 회의 준비 및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로 미국은 수년내에 국제표준에 적합한 컨테이너용 무선인식 전자봉인(RFID e Seal)이 되지 않은 컨테이너는 검사소요시간에 관계없이 전수 검사할 계획에 있다.

- ISO 총회에서는 컨테이너 무선인식을 의제로 선정하고 논의중에 있어 세계 각국은 무선인식 응용표준의 선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회유치 및 실용화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RFID 표준흔선 불식을 위해 국가표준 정비**

**- RFID 국제·국가 표준동향 세미나(5.10) 개최 -**

- 기술표준원은 최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RFID기술의 산업계 표준화니즈를 적시 반영하기 위해 RFID용어 등 RFID 국가표준(KS) 12종의 원안작업을 완료하고, 산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7월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KS 원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FID 표준화위원회”에서 도출됨

-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국제표준화로 유통물류, Mobile RFID등 응용분야 확대 전망
- 미국 월마트는 납품박스,파렛트어 부착의무화('05년100사,'06년300사)
  - 우리 기업이 RFID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 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한국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10일(수) 배리엇 호텔에서 250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RFID

국제·국가표준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번엔 마련된 국가표준 12종의 내용과 향후 RFID 산업화를 위한 국제·국가 표준화 대응방안 등을 국내 산업계에 구체적으로 공표하였다.

- 국가표준(안)은“ 용어 2종”,“ RFID 리더-태그간 통신규약 6종”, 데이터 규약 2종 등 12종으로, RFID 핵심분야에 대해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마련한 것이며, RFID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표준흔선의 문제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엔 제정될 국가표준 핵심사항 중의 하나는 그간 산업계에서 “무선인식, 무선식별, 전자식별, 전자태그, 전자칩, 전자표찰” 등 각양 각색으로 명명해 왔던 “RFID용어 표준화”이며, 국가표준 마련으로 RFID의 관련 우리말 용어가 통일될 전망이다.

-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RFID 용어의 후보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무선인식”으로, “RFID Tag”가 “무선인식 태그”, “전자태그”도 수용)”로 각각 도출되었다.

※ RFID 태그”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부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전자태그”의 용어가 추가되었음.

- 그러나, “RFID”는 표준화 과정에서 “무선인식”과 함께 “무선식별, 전자식별” 등의 용어채택 요구도 만만치 않아, 기술표준원

은 KS 입안과정 중에 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그 결과가 국가표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구해 나갈 방침이다.

11 기술표준원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상품, 동물, 차량, 물류, ID 카드 등의 RFID 응용별 국제표준화와 연계하여 '08년까지 RFID 관련 국가표준 50여종을 정비하고, 우리 산업으로의 적용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계로 실시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FID기술은 금년부터 미국월마트,국방성 등이 채용하면서, 유통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입등을 고려할 때, 국가표준은 반드시 국제 표준을 준용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에 우리 기술반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기술개발사업, 시범사업의 결과가 국제표준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경제시대의 열쇠, 바로 표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가 경부 고속도로에 달릴 수 있을까? 독일의 아우토반은? 그럼 아프리카에서는?

11 세계각국은 수소경제시대 실현을 위해 수소의 제조, 보관 및 이용 등에 대한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단일화된 세계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공통된 규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필수적이며, 수소경제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이를 실현하고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수소에너지 기술위원회(IC 197)에서는 전세계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 원료탱크, 충전소 등 10개 분야에서 표준화가 추진 중임.

### ※ 전 세계 충전소 현황 :

전 세계 742소(유럽 26, 미주 32, 아시아 15, 기타 1) 미국(27), 독일(11), 일본(11), 한국(1,현대·기아 연구소)


11 통신장비, 노트북 등의 무선·휴대용 전자기기는 다기능, 고성능화 됨에 따라, 고용량의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의 2차전지로는 한계가 있어 연료전지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연료전지 기술위원회(IC 105)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을 중심으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용 연료전지, 원천어, 스킵 등 구동용 연료전지, 가정·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추진중임.

※ 표준화작업반(WG) 의장국 : 미국(4),  
일본(3), 독일(2), 캐나다(1)

11 기술표준원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진전에 우리나라도 뛰어들어, 수소·연료전지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대응 및 선점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2007년도

ISO/TC197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였다.

○ 우리나라는 '04년부터 ISO/TC197과 IEC/TC105 기술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기술 정보를 신속히 입수,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선진국의 기술과 표준화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국제표준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2005년도 제2차 신기술(NT)등 인증서 수여식 」